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8주일
제31권 36호(가해) 2011.7.31

[묵상]



예수님 따라 외딴 곳까지 따라온 군중,
말씀에 심취해 해 저무는지도 모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예수님,
빵도 있어야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말씀으로 먼저 풍성해진 군중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신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아라.
나는 그것을 축복하여
너희들의 필요를 충족하고도 넘치게 하겠다.
오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열두 광주리
저희의 미약한 시작을
흘려넘치게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저희의 내어놓음 없인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의 나눔은
오히려 풍성해지고 거룩해지니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음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게 하심이고
구원사업의 동반자가 되는 우리의 나눔은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아를 돕는 연합체)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발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립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장현숙 발바라, 엄은섭 도로테오 (생)김현실 아네스, 정해홍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오진 베드로, 소효균 요셉, 권순봉 요안나, 반영선 도미니카, 박송희, 이병호 토마스, 고준희 제임스, 엄익찬 안토니오, 심진섭 바오로 & 서성혜 마리아, 강양근,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배정환 베드로 & 전길례 모니카 (생)조경림 요셉, 신대철 알베르토, 정미영 미카엘라 가정, 박세민 리디아, 김소영 요안나 & 김혜영 사비나, 최영신 프란치스코 부제 가정, 전하현 마리아, 이현자 안나, 배태임 안나, 토마스 북구역 가정들, 한국의방선교회 백삼위후원가정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5,1-3

화답송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주님, 당신손을 펼치시어 - 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네.○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나이다.○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35.37-39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음 마태오(Matthew) 14,13-21

영성채송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빵을 주셨으니,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14	215	214
봉헌	231	231	231
성체	307	283	307
파견	181	211	181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문화의 변모를 이룩함

이러한 참된 의미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또한 다른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 속에도 존재해야만 한다. 모성애의 체험은 타인들을 민감하게 이해하도록 해주며, 동시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여한다. "모성애는 여성의 태중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신비와의 특별한 친교를 수반합니다.자신 안에 자라고 있는 새로운 인간 존재와의 이러한 독특한 접촉은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존재를 향하는 태도를 가지게 해주며, 이러한 태도는 여성의 인격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어머니는 자기 안에 다른 인간 존재를 받아들여 보호하며, 자기 안에서 그 존재가 자라나게 해주고, 그 존재에게 공간을 제공하며, 한 사람의 타인인 그 존재를 존중한다. 인간 관계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열려있어야만 진정한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먼저 여성들이 배우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준다.

그 다른 사람이란, 유용성, 힘, 지력, 아름다움 또는 건강 등과 같은 다른 사실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존엄성 때문에 인정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다.

교회와 인류는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공헌을 여성들에게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의 진정한 변모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이제 본인은 이미 낙태를 한 적이 있는 여성들에게 특별히 말한다. 교회는 여러분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는 많은 요소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무척 고통스럽고 거의 절망적이기도 한 결정이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속의 상처는 아마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일어났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일은 분명히 엄청난 잘못이다. 그러나 실망에 굴복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라.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이해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마주 대하려고 노력하라.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겸손과 신뢰로 여러분 자신을 참회에 내맡겨라. 자비로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며, 화해의 성사 안에서 당신의 평화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결국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지금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아가에게 용서를 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고통스러운 체험의 결과로, 여러분은 생명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지닌 권리에 대한 웅변적인 옹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빵이요~~~!!

튀밥 장수가 빵튀기할 준비를 합니다. 주변의 아이들은 귀를 막고 기다립니다. 튀밥 장수의 외침과 함께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예전 장터에서 주전부리를 위해 튀밥을 튀기던 흔하게 보던 풍경입니다.

쌀이나 강냉이를 넣어 빵튀기 기계를 빙빙 돌리다가 어느 정도 달궈져 적당한 시간이 되면 빵이요~~ 라는 외침과 함께 쌀, 강냉이가 몇 배나 부풀려져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지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그마한 봉지에 담겨져 빵튀기 기계에 들어간 쌀이 요술 상자 같은 빵튀기 기계 안에서 어느새 큰 부대에 담아야만 할 만큼 커진 것이 마냥 놀라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천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작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예수님의 손을 거쳐자 오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그 적은 양의 음식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불어났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봉헌한 작지만 소중한 빵과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을 거쳐 엄청나게 불어났음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 신기하게만 보였던 튀밥 장수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봉헌물을 받으셔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부풀려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하찮고 작은 봉헌물이지만 예수님은 그 미약한 제물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더 테레사의 작은 희생, 아프리카 톤즈라는 작은 마을에서의 이태석

신부님의 보이지 않는 봉헌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주님께로 이끌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마태13,31-3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은 작은 겨자씨이지만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늘 나라의 신비입니다.

비록 작고 비천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온전히 그분께 봉헌할 때 그분은 우리를 한없이 큰 당신의 도구로 써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을 크게 보아주신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화려하고 큰 봉헌을 바라지 않으시고 초라하고 작지만 정성스럽고 온전하게 봉헌한 우리의 제물을 어여뵈 보아주십니다.

오늘도 나는 턱없이 부족한 나의 제물을 가지고 그분께로 가서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손에 나의 작은 제물을 받으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어릴 적 들었던 튀밥 장수의 외침이 오늘은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리는 듯합니다.

빵이요~~~!!!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

성 바오로수도회 준관구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테레사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테레사
제물봉헌자			P.V. 1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8 월

- ◆ 성시간 : 4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 토런스 북구역
- ◆ 병자 영성체 : 4일(목) 오전 10시부터
- ◆ 성모신심 미사 : 6일(토) 오전 8시30분
-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15일(월) 오후 7시30분

◆ 소년복사단 모임

- 일시 : 8월13일(토) 오후 4시~6시, 성당
- 문의 : 소년복사단장 황선홍 그레고리오 ☎ (424)903-6637
- * 새로 신청한 소년소녀 복사들도 참석해야 합니다.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새 회기를 맞아 각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 가입 확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참여하여 본당 발전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야외 십자가의 길' 개인 봉헌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숙원사업의 하나인 '야외 십자가의 길' 조성 관련, 제단체들의 신청이 마감된 후 개인봉헌을 받고 있습니다. * 개인봉헌 마감 : 8월14일(주일), 문의:본당신부님.

◆ 백삼위 골프회 8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8월13일(토) 오전 11시20분까지 집합
- 장소 : 알론드라 골프코스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총무 ☎ (213)272-3598

◆ 제 68차 남가주 한인 ME 첫주말 수강생 모집

- 날짜 : 9월2일(금)~4일(주일)
- 장소 : Mary & Joseph Retreat Center(P.V.)
- 등록비 : \$50(부부당) * 마감 : 8월14일
- 문의 : 본당 ME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정병옥 율리아 ☎ (310)780-9055

야외14처 기금마련 행사... 적극 동참해주십시오!

◆ 성모회 김치 깎뚜기 등 판매

- 된장, 고추장, 새우젓, 깎뚜기 : 30일 특전미사, 31일 주일미사 후
- 김치 : 9월25일(주일, 빈병 수거합니다.)
- * 문의 ☎ 성모회장 최길숙 요세피나(310)738-4788

◆ 양업회 친교 점심 및 음식장터

- 일시 : 8월6일 특전미사, 7일 주일미사
- 품목 : 족발, 해물파전, 추어탕식 혼합국밥(ToGo가능), 각종 음료수
- 문의 : 양업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 (310)569-0482

◆ 대건회 거라지 세일 및 여름보양식 삼계탕 판매

- 일시 : 8월14일(주일)
- 장소 : 성당 친교장
- 물품수집 : 의류, 신발, 생활용품, 전자제품, 운동용품, 장난감 등
- 수거일시 : 8월7일까지 배식대 옆에 마련된 수거함
- * 문의 ☎ 대건회장 송호창 요셉(323)899-8758

◆ 본당설립 30주년 기념 종합예술대전 안내<주보 6면 참조>

◆ 강당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신 분은 빨리 제자리에 돌려 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새로 나온 신자 환영합니다. ◎

- ♡ 김영숙 헬레나(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모친)
- ♡ 신경화 카타리나(Lomita)
- ♡ 박성하 헤드비가(Playa Del Rey)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7월31일(주일) : 토런스 남 1반(장터국수 \$3)
- 8월7일(주일) : 양업회(추어탕식 혼합국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금동균	김일선	김재영	김정희	노세미	노천수
	민형기	박종민	박현주	배태임	신순철	엄지선
	원건희	윤화경	이용무	이현주	장영진	정혜영
	정혜영	최길주	최미열	최재은	한혜숙	
합계 : \$1,940						
미사헌금 : \$2,848						
성전헌금	김일선	노세미	노천수	박현주	신순철	엄지선
	원건희	윤화경	이용무	이현주	정혜영	정혜영
	최길주	최미열	최재은	한혜숙		
합계 : \$1,704						
한남체인 기부금 : \$430 주보광고후원 : \$250						
감사헌금 : 모은기 박이래네 정열모						

공지사항

◆ 주일학교용 사무용품 기증에 감사드립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보다 원활한 주일학교 행정업무를 위해 익명의 교우들께서 프린터, 복사기 등 필요한 사무용품을 기증해주셨습니다.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주일학교 교장 이인석 비오 ☎(213)258-8665

◆ 주일학교 S.O.E.L. 찬양밴드 단원 모집

- 대상 : 6학년 이상(초보자 가능)
- 파트 : 노래, 각종 악기
- 문의 : 김유한 요한 ☎(310)951-8036
- S.O.E.L.(Soul Of Eucharistic Laudation)

◆ 학생미사(주일 오전 9시30분)에 빠지지 맙시다.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여름방학입니다. 그러나 주일학생미사는 그대로 진행중이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새학기 2차등록 8월21일부터 접수합니다.

- 등록비 : 첫째 \$120, 둘째 \$80, 셋째 \$60, 넷째 수업료 없음
- 2차접수 : 8월21일~9월11일
- 자모회비 : 한가정당 \$40
- 개강 : 9월11일(주일)

남가주 소식

◆ 제24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성령채신대회

- 일시 : 8월20(토), 21일(일)
- 주제 :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18)
- 장소 : 패사디나 시티칼리지 색슨 오디터리엄
(1570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6)
- 지도 : 배기현 신부, 이상재 신부, 정현철 신부,
정희옥 신부, 한상만 신부, 황창연 신부
- 참가티켓 : \$25(본당 사무실에서 구입하면 \$20입니다.)
- 카풀(교통편) : 대회당일 오전 7시 백삼위성당 주차장
(차편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연락 바랍니다.)
- 문의:백삼위성령기도회장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 전례 특강 피정

- 제목 : '미사와 우리의 삶'
- 강사 : 손희송 베네딕도 신부(서울가톨릭대학교 교수)
- 일시 : 8월7일(주일) 오후1시
- 장소 :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 ☎(818)893-2916

◆ 성토마스 새성전봉헌 2주년 기념 영성특강

- 일시 : 8월12일(금)~14일(주일)
- 주제 : 신약의 성찬론(성삼일의 신비, 전례와 신앙체험,
좋은 전례를 만들기 위한 지침)
- 강사 : 구정모 마르코 신부(예수회)
- 참가비 : \$30
- 장소 : 성토마스 한인천주교회 ☎(714)772-3995

소공동체 8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박혜경 테나타 (310)808-5005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별혜경 올리아나 920-5153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8/5(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8/13(토) 오후 7시, 성당강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8/11(목)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홍광선 요셉 543-4953 8/20(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우영희 엘리사벳 720-2876 8/9(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정숙 수산나 320-0855	야외합동반모임 Hickory Park 8/13(토) 오전 11시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야외 합동 반모임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야외 합동 반모임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권진열 피데스 8/12(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야외반모임 우정의 종각빌 공원 8/21(주일) 오전 10시30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야외 합동 반모임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최제은 베드로 997-9006 8/12(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482-9108 8/14(주일) 11시 미사후, 성당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8/12(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금명영 세실리아 293-4365 8/9(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주일학교 고등부 신앙대회 샌디에이고(29일~31일)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본당설립 30주년기념 종합예술대전을 열면서 -****백삼위 한인성당 교우 여러분께**

본당 설립3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9월10일부터 25일까지 종합예술대전 전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이민 역사를 미루어 볼 때에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백삼위 한인성당은 우리의 신앙을 위한 '모임의 장소'이며 또한 타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민 생활 속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끼리' 모여 생활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만남과 대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쁜, 그리고 때로는 힘든 이곳 생활 속에서 자기를 찾기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백삼위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 중의 하나로, 이 '만남과 대화의 장소'에서 우리 교우들 그리고 자녀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전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하려고 하는 작품은 다방면입니다. 유화, 수채화, 한국화, 민화, 조각, 도자기, 서예, 사진, 공예, 자수, Quilt, 꽃꽂이, 詩 등등을 본당 강당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전시 할 예정입니다.

각 분야에서 활동 및 작업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마감 : 8월14일(주일)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 혹은 아래의 e-mail로 연락하여 신청서를 받아 (myjindale@hotmail.com) e-mail로 신청
- 작품제출일자 : 9월4일(주일) 오후 1시 ~ 3시
- 작품제출장소 및 일자 : 본당 강당, 9월4일(주일) 오후 1시 ~ 3시
- 리셉션 일시 : 9월11일(주일) 오후 1시 ~ 3시, 강당
- 전시기간 : 9월11일(주일) ~ 9월25일(주일)
- 연락처 : 이명렬 (310)749-0278
- 신청서 : 사무실에 비치

[준비위원]

- * 고문 : 김선제 바오로 (310)541-5840
- * 총무 : 김민수 바오로 (310)986-1890
- * 유화/수채화 : 김운진 카타리나 (310)997-5545, 김주량 요한 (310)217-8193
- * 민화/한국화 : 김선영 글라라 (424)241-5988
- * 사진 : 한장환 안토니오 (310)408-6369
- * 꽃꽂이 :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 서예 : 김대우 비오 (310)920-7647
- * 코디네이터 : 문두현 스테파노 (213)741-0088
- * 도자기/공예/자수/퀼트/시, 기타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